

보도 시점 2026. 5. 17.(일) 11:00 배포 2026. 5. 15.(금) 16:00
 5. 18.(월) 조간

중양아시아 축산 부흥 견인 '케이(K)-축산기술' 성과 가시화

- 코피아(KOPIA) 사업 성과 집약,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 실험실 준공
- 중양아시아 5개국 축산 국제 학술회의 참석, 한국 낙농 해외 사업 성과 발표
- 9월 한-중양아시아 정상회담 연계, 실무협의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2020년부터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 분야 농업기술 협력이 해를 거듭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이승돈 청장은 5월 15일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해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한 한-키르기스스탄 축산 기술협력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일리치 마르스백 울루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수석차관과 만나 오는 9월 열릴 한-중양아시아 정상회담과 연계해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양국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오전에는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에서 열린 축산연구소 실험실 준공식에 참석해 아셀 카넨바예바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차관, 라하드백 이브라예프축산연구소장 등과 환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산실험실 연구소 준공은 농촌진흥청이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해 코이카(KOICA)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축산 기술협력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한국 우수 젖소 유전자원과 한국산 정액을 활용한 인공수정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인공수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술 보급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코피아(KOPIA) 사업 참여 농가의 우유 생산량이 채래종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 청장은 준공식에 이어 축산연구소에서 개최된 ‘중양아시아 5개국 축산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에 참석해 중양아시아 지역 축산 발전에 기여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알렸다. 농촌진흥청은 이 자리에서 코피아(KOPIA) 및 아파시(AFACI)*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국가별 젖소 개량 기반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농촌진흥청 주도로 아시아 농업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협의체(16개국 참여)

농촌진흥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과의 사업을 확대하고, 개체식별, 혈통등록, 능력검정 등 관리 체계 구축, 한국산 축산 농기자재 진출 등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키르기스스탄 축산사업은 케이(K)-농업기술 보급의 모범 사례”라며, “9월 정상회담과 연계해 중양아시아 전역에 케이(K)-축산 기술협력이 뿌리내려 키르기스스탄 축산업 부흥을 견인하고 나아가 생산성 향상으로 현지 축산 농가의 증대를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경희 (063-238-1160)
		담당자	연구사 유지현 (063-238-1165)
<공동>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민경 (063-238-1110)
		담당자	지도관 한종석 (063-238-1123)
	기술협력국 수출농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안옥현 (063-238-0670)
		담당자	지도사 이상훈 (063-238-0682)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41-580-3380)
		담당자	연구사 박성민 (041-580-338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